

사람과 말

Man and Language

창세기 11:1-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2월 27일 설교

¹은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²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³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⁴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⁵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⁶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⁷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⁸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⁹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말이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은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하였고 마지막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했습니다. 말이 하나일 때는 다 모여 살았는데 바벨탑 쌓은 걸 계기로 말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사람들이 흠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같이 못 살지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데 뭉쳐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 사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낌이 남다릅니다. 이민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잘 하는 말하고 이 동네에서 쓰는 말이 달라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참 답답한데 우리가 가진 이게 진짜 말 못 하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괜히 탑을 쌓았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니 탑 쌓은 그 사람들이 더 미워집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이 미국은 영어를 씁니다. 스페인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말은 있습니다. 중국말, 일본말, 독일말, 프랑스말. 하여간 사람 있는 곳은 어디나 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뭘까요? 말은 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소리를 내어 뜻을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말을 하고 들으면서 뜻 곧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지만 꼭 소리를 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리를 글로 적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라는 걸 하게 되었을까 두루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설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언어가 없는 단계에서 언어가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하는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하는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겨났다고 봅니다.

진화론의 근본 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이전 단계 사이의 고리가 빠져 있다는 거지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하고 말을 할 줄 아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중간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못 하던 동물 내지 원시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과 말

성경은 언어학 책이 아니지만 말이 무엇인지 그 원리는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다른 학문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또 그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학문의 어느 분야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하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본질 곧 사람됨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하고 닮았고, 지성의로 이루어진 인격을 가졌고, 혼자일 수 없고 함께일 때 사람다울 수 있다 했습니다.

니다. 사람의 본질이지요. 이게 다 서로 이어져 있는데 말도 그렇게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말을 합니다. 말할 줄 아는 게 사람이니 말을 못 하면 사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어도 사람이라면 말하는 능력 자체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구절은 없지만 이걸 하면 안 된다 하신 명령이 사람의 자유를 증명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 곧바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 속에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덴동산을 잘 가꾸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말이지요. 언어입니다. 어떤 형태의 말인지 그건 모릅니다.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암시 같은 형태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의사소통, 곧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아담이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 하고 대답했는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줄 때도 소리를 내어 말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생각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는 능력, 곧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명령도 주신 것이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이 입을 열었는데 보니 소리를 내는 말도 잘 했습니다. 웅알이도 안 하고 유창한 말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 여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던 아니면 아담을 통해 들었던 여자도 아담하고 똑같이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닮은 피조물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명령은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주신 명령은 동물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나무야 생겨라 하시니 나무가 생긴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니 그대로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물의 본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사람에게에는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이어져 있고 인격과 이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 그 생각한 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말하는 능력에 속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일 때 사람이라 했지요? 둘이면서 하나가 되자면 서로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말하는 능력은 여럿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서도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으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집니다.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런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져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가까워진 사람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라

은 세상에 말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그건 알 도리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였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이었는데 동쪽으로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살았을 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말을 하였던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우리 같이 하자 하는 말 아닙니까? 반대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아닙니까? 같이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겠지요. 벽돌을 만든 걸 보니 기술도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덕분에 하나가 되어 그런 기술도 발전시키고 건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자!” 하고 말한 걸 보니 한 마음인 것은 여전한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

는 건물을 만들자는 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건물을 만들어 이제는 그런 벌을 주셔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이죠.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거지요.

흠어지지 말자 한 것도 땅에 두루 퍼지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자!” 하고 시작은 잘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로 뭉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뭉쳐 한다는 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통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 잘 소통하여 하나가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자는 뜻이었는데 사람만 하나가 된 다음 하나님하고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바꾼 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본질인 말도 변했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자고 주신 게 말인데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으니 말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뒤로 돌아가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사람의 말이 주로 이 죄하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이른 바 대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도 아담 혼자 독창을 했지 여자는 대꾸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는 아직 대화라는 게 안 나옵니다.

일방적인 말이 아닌 대화,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은 첫 사건은 창세기 삼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도 아니고 아담하고 여자도 아니고 뱀하고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뱀이 말을 걸었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묻고 여자가 답하고 뱀이 또 한 마디 한 다음 여자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내용은 여전히 죄입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하고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이 답하고 하나님이 또 물으시고 아담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물으시고 여자가 답했습니다. 뱀한테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하고는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뜻 같기도 하지만 뱀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별만 주셨습니다.

창세기 사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가인이 나눈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추궁하시고 가인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주실 때 또 홍수가 끝난 뒤에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처음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경우에는 사람이 대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꼭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이 문책하시는 경우에만 사람이 반항하듯 대답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

죄가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주신 게 말인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여 아담과 아내가 멀어지고, 이들이 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형제 사이가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온 인류가 하나로 뭉친 듯 보였지만 그렇게 뭉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쓰라고 주신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로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멀어 안 보여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지극하고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과 대를 부지런히 쌓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결론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런 식이라면 이들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벌을 받아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이 툭툭 뭉쳐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는 근거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이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을 뒤섞어 이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못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일도 못 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결국 뿔뿔이 흠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흉내를 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자, 우리 저렇게 하자” 하였는데 하나님도

“자, 우리 내려가서 말을 뒤섞어버리자” 하셨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표현 속에 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닮은 피조물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가 되고 싶으냐? 하나가 되려거든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도 너희랑 하나가 되고 싶다, 너희만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말

말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로 간단히 줄이면 첫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말이라는 점입니다. 말은 소통입니다. 내 말로 내 뜻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놀라운 특권이면서 책임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말이 더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 자체가 더러워진 건 아닙니다. 말을 쓰는 사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의 방식을 더럽게 사용합니다. 더러워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말인데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죄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하고 손잡고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라고 주신 언어를 하나 뒀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세상에 있어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니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세상 참 삭막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도구인 말이 죄로 더러워져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짜 연합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벽이 허물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요즘 죄의 힘을 무시한 채 무조건 하나가 되자는 운동들 많이 합니다. 스포츠든,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종교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지어 옷을 입게 되었는데 옷만 벗으면 되는 줄 알고 누드로 살자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건 쉬운 말로 죽이 잘 맞는 거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가 되려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죽이 잘 맞아 같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연합, 주 예수의 은혜를 모른 채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는 것은 먼 옛날 탐을 쌓아 하나님과 한 판 붙어보려 했던 본문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말을 달라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로 있으면 죄를 더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민생활이 더 고달프지만 뒤집어보면 그것 때문에 죄가 그만큼 덜 자랐고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막아 주셔서 이렇게나마 살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말입니다. 말이 곧 인격이요 사람의 본질에 속한 것이니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은 중요하지만 죄가 말을 너무나 많이 더럽혀 놓았습니다. 더럽힌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중요한 말을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마구 합니다. 거짓말도, 욕도, 비방하는 말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나 쉽게 해 버립니다. 차라리 말을 모르는 동물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이긴 우리는 그런 잘못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말이 곧 내 인격이요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무슨 말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짓말이나 욕이나 비방하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 예수 떠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마디를 해도 믿을 수 있는 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너와 나를 가깝게 이어주는 말을 하여 우리에게 소통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 죄 때문에 잊어버린 그 뜻을 되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인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를 대할 때는 어떤지 입을 열 때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그런 존경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얼마나 참된 말입니까? 속이는 말은 나와 나를 갈라놓습니다. 소통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내 말에 내 경건이 나타납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말에 담겼습니까? 말에 안 담겼다면 그건 마음에도 없는 겁니다. 경건한 척 말하고서도 속에 경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경건이 없이 마구 말을 하는데 속에 경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고 잘못을 함께 고쳐 감으로써 사람다운 사람,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사람, 말로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훈련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수경 목사)